



정영창 작 '박관현 열사'



홍성민 작 '우리 노래'



6월 은암미술관에서 전시가 예정된 박중석 작가의 '박기순 열사의 윤상원 열사'



‘그대들의 혼, 부활의 노래’...아트로 소환

들불야학은 영혼 결혼을 통해 사후 부부가 된 박기순, 윤상원 열사를 중심으로 1978년부터 1981년까지 광주에서 노동자들에게 지식과 노동의식을 가르친 야학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투사회보 등 현대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 지점을 이루고 있는 들불야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주목된다.

광주은암미술관(채종기 관장)이 46주기 5·18민중항쟁에 앞서 오월 기획전으로 마련한 ‘들불야학’이 그것으로, 지난 7일 개막, 오는 6월 5일까지 열린다.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 축시인 문명란 시인(1935~2015·전 조선대 교수)의 ‘부활의 노래’ 육필원고가 이번 전시를 통해 공개된다.

육필원고를 확보했지만 분실이나 훼손 등의 우려에 따라 전시장에서는 복사된 아

특히 이번 전시에서 주목되는 자료는 ‘돌아오는구나/돌아오는구나/그대들의 꽃다운 혼./뫄뫄한 사랑 뫄뫄한 꿈을 안고/죽음을 넘어 부활의 노래로/정녕 그대들은 돌아오는구나’로 영혼 결혼식의 서막을 열었던, 눈물겨운 문명란 시인의 시 ‘부활의 노래’다.

공개는 이미 됐지만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는 묘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귀중한 작품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 축시인 문명란 시인(1935~2015·전 조선대 교수)의 ‘부활의 노래’ 육필원고가 이번 전시를 통해 공개된다.

육필원고를 확보했지만 분실이나 훼손 등의 우려에 따라 전시장에서는 복사된 아

은암미술관 46주기 5·18 앞서 ‘들불야학’전
내달 5일까지 아카이브·회화·문학 등 60여점
“역사적 사건·일상 분리되지 않고 기억되길”

카이브를 선보인다.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이 전필 원고가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발견한 ‘부활의 노래’ 육필원고는 은암원기념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당시 들불야학과 관련 깊은 시민들의 인터뷰와 들불열사기념사업회가 기존 아카이브 자료를 결합해 의미를 더한다.

전시는 ‘들불의 혼적(집)’과 ‘부활의 노래(기억의 소환)’ 등 두가지 섹션으로 이

뤄졌다.

1섹션인 ‘들불의 혼적(집)’에서는 당시 노동자들의 삶과 공동체의 삶의 터전이었던 광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기억을 조명한다. 곧 사라질 위험에 처한 광천시민아파트의 모습을 회화, 미디어 설치, 사진, 어반스케치를 통해 시각화하며, 개인의 기억이 공동체 서사로 확장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어 2섹션인 ‘부활의 노래(기억의 소

환)’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정신을 소환하기 위해 들불열사들의 열거와 걸은 길을 조명한다.

1980년 2월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 바쳐진 시인 문명란의 ‘부활의 노래’를 중심으로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삶과 의미를 재구성하며, 샌드애니메이션, 회화, 아카이브자료, 구술채록 영상 등을 통해 어떤 불꽃보다 뜨거웠던 들불야학의 주역들의 열정을 환원한다는 복안이다.

또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 회원들로 구성된 시민작가 40명의 회화도 선보인다.

참여작가들로는 회화에 김광래, 김상진, 박종석, 정영창, 하성흠, 홍성민씨, 미디어 설치에 김수민, 정정주씨, 사진에 정영창씨, 문학에 나종영(겉개시), 고 문병

환, 구술채록 영상에는 다류규동 임성엽씨, 광천시민아파트를 소재로 한 시민 참여 어반스케치 작가 40명 등이다.

구술채록 대상자로는 김상윤, 서대석, 임낙영, 전영호, 주홍수 등 5명이다. 주홍수는 광주 최초 연립주택인 광천시민아파트 프로젝트 진행자 자격으로 포함됐다.

채종기 관장은 “들불야학”전은 구상을 이미 1년 전부터 착수했다. 원래 관계자 10명을 하려다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5명에 그쳤지만 이들을 채록해둬으로써 이와 관련해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시민아파트가 추념관이나 기념관으로 더 확장돼 역사적 사건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고 기억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현실 질서 흔드는 ‘이형의 뼈’...동시대 불안 은유

‘ACC 뉴스트’ 2회 선정작가전 내달 7일까지 전시 7관서
임수범·하승완, 고착화된 의식 질문·혼중 이미지 주목

신화 속 존재와 미래 문명의 파편이 뒤섞인 낯선 세계가 전시장 안에 펼쳐진다.

인간과 비인간, 과거와 미래, 현실과 환상이 뒤엉킨 이미지는 익숙한 질서와 감각을 흔들며 관람객을 새로운 상상의 영역으로 이끈다. 뼈와 곤충, 기계와 신화적 형상이 교차하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시각적 실험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불안과 변이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지난 7일 개막, 다음달 7일까지 문화창조원 전시 7관에서 ‘ACC 뉴스트(NEWST)’의 두 번째 전시 ‘이형의 뼈

Aberrant Bones: 임수범, 하승완’을 선보인다.

ACC는 지역 작가 공모전인 2026 ACC 뉴스트를 통해 이정기, 서영기, 양나희, 임수범·하승완 등 총 4팀(5인)의 작가를 선정해 3~8월 순차 전시를 진행한다.

전시가 열리는 7관은 지역에서 평면 회화 위주로 활동하는 작가의 창작 활동 지원 및 전시 기회 확대를 위해 ACC가 새롭게 조성한 전시 공간이다.

지난 3월 이정기 작가의 ‘번역된 가상’이 개막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예술적 세계관이 공간 전체에 재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극대화

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에 참여한 임수범 작가는 기이한 뼈의 형상을 통해 현실의 고착된 질서에 의문을 제기한다. 동서양 신화 속 존재들이 어우러진 유기적 세계관을 구현하며, 전시장 안에 경계 없는 초월적 공간을 펼친다.

하승완 작가는 신화적 전설과 현대 문명의 교차점에서 탄생한 ‘혼중’의 이미지에 주목한다. 고전 속 인물과 인공지능(AI) 로봇을 곤충의 형상 등과 결합해 과거와 미래가 뒤섞인 파격적인 조형미를 선사한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전시는 지역 청년 작가들이 자신의 미학을 전시장에서 마음껏 펼치는 성장과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우리 지역 작가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하승완 작 '미르미돈'

“천사들과 함께하는 오후의 휴식”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완호수공원서 무료 공연

봄벌이 내려앉은 공원에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오는 16일 오후 4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천사들과 함께하는 오후의 휴식’을 선보인다. 공연장 문턱 없이, 주말 오후 산책길에 자연스럽게 음악과 마주치는 자리다.

이번 공연은 3개의 무대와 2개의 특별 무대로 짜였다. 아일랜드 민요 ‘Oh! Danny Boy’와 ‘Down by the Sally Gardens’로 문을 열어 서정적인 첫 울림을 건넨다.

이어지는 특별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전한결이 지오르다니의 ‘Caro mio Ben’, 이세은이 페르골레지의 ‘Se tu m’ami’를 각각 독창으로 들려준다. 이탈리아 바로크 가곡 특유의 아름다움이 공연 한복판을 채울 순간이다.

두 번째 무대는 분위기가 확 바뀐다. 라틴 리듬의 ‘Plena’로 이국적인 활력을 불어넣은 뒤, G.O.D의 명곡 ‘춧발 하나’로 따뜻한 감성을 되살린다. 두 번째 특별 무대는 단원 10명으로 꾸린 빛울림 중창단이 한국 가곡 ‘목련화’와 ‘비목’을 들려주 산책길에 자연스럽게 음악과 마주치는 자리다.

클래식 합창 공연에서 판소리까지, 이색적인 구성이다.

마지막 무대는 ‘나는 반딧불’, ‘난감하네’, ‘꽤지나 칭칭나네’로 흥겨운 마무리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발 구르게 만들 레퍼토이다.

오전형 상임지휘자는 “맑고 순수한 합창의 울림이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장료는 무료. 문의 062-613-8246.

황해은 기자 nab@gjdream.com

문화리뷰

존 레논 아듀...5·18이 더 많이 기억되길



2019년부터 5층 건물 벽면에 있었던 기존 존 레논 열곡 벽화 대신 지난 7일 제막식을 통해 시민사회에 소개된 윤상원 열사 얼굴 벽화.

그림과 역사 사이 ‘윤상원 얼굴 벽화’ 도심 새로운 핫플 기대
주홍 대표·임의진 목사 등 핫플 묘소 참배 후 교체 착수 돌입

벽에 그린 그림이 벽화다. 벽화는 현대대 대중 표현 양식이 아니다. 그 전통은 유구한 시간성이 내포돼 있다.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현대적 입맛에 맞게 재해석되고 가공된 벽화는 무진장 널려 있다. 틀에 맞춰지고 계획적인 세계에 대한 반론이 벽화로 표출되는가 하면, 공공성을 담보로 흔하게 평면의 벽면이나 바다 또는 자연물 혹은 조형물에 그려진다. 광장히 자유분방하며 어떤 규정이나 틀에 사로잡히지 않는 특징이 있다. 다수에게 불쾌감이나 분노를 자극하지 않는 다거나 벽화를 해서는 안될 문화유산 등을 제외하면 벽화에 대한 잦은 비교적 용인되는 추세다.

오려 벽화 하나가 온 도심과 마을을 변모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 그런데 벽화가 단순하게 벽에 그린 그림이라면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벽화는 공공과 시간성, 역사적 혹은 사회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만 반드시 표현 너머에 의미를 함유한다. 그림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담론, 화두 같은 것이 벽화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광주 도심 대표적 벽화로 군림해 왔던 비틀스의 멤버 존 윈스턴 레논(1940~1980)이 내려지고 5·18광주민중항쟁의 대표적 인물로 시민군 대변인을 맡았던 광산 출생 윤상원 열사(1950~1980)가 새겨졌다. 존 레논 벽화는 2019년 작업, 설치됐다. 7년만에 내려졌지만 N주차장 옆 5층 건물 벽면 전체를 캔버스 삼아 새겨져 도심의 또 다른 명물 역할을 해왔다.

너무 낮이 익이 별반 신경을 쓰지 않는 부류의

시민들도 있었다. 다만 타지에서 왔거나 이를 접하지 않은 시민들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큰 벽에 그려놓은 거냐’를 물어왔다. 이 벽면에 존 레논이 자리잡게 된다는 그의 노래 이매진(Imagine)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매진은 1971년 발표된 곡으로 평화와 희망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메시지 송으로 꼽힌다. 더욱이 발음이 임의진 목사와 비슷하다. 똑같이 평화를 노래하거나 평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왔기에 존 레논이 그려졌다는 재미진 소문도 더해졌다. 그동안 존 레논을 배경으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등 같은 유명인들도 인증샷을 남겼다고 하니 놀랐다.

알게 모르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오간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인물사진이 궁금했을 것이다. 이 궁금하던 사진이 흔들리지 않고 그 위상을 유지할 것 같았으나 아쉽게 종지부를 찍게 됐다. 존 레논 자리에는 윤상원의 얼굴 벽화가 당당히 자리잡았다. 윤상원벽화프로젝트 주최로 7일 오전 기념비적인 개막식을 열고 대내외에 이를 알렸다. 윤상원 열사 얼굴 벽화는 민중미술에 천착해온 이상호 작가를 포함해 임의진 목사, 주홍 갤러리 생각상자 대표 등이 지난 4월 10일쯤 광주의 대표적 인물로 교체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로부터 3일

후인 4월 13일쯤 윤상원 열사의 묘소를 찾아 영령께 인사를 올린 뒤 교체작업에 들어갔다.

원화는 광주 민중미술의 대표인물 중 한명인 이상호 작가가 맡았고, 그래피티 아티스트 이종배씨가 벽면에 옮기는 작업을 맡아 윤상원의 얼굴 벽화가 완성됐다. 마무리 작업 때는 이종배 작가의 소속사 대표인 김병만 코미디언이 현장을 찾기도 했다. 이 작가는 투사의 얼굴을 재생하기보다는 한층 더 친화적인 윤상원의 얼굴 표현을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후시 인물을 몰라보는 시민이나 방문객이 있을까 봐서 오른쪽 상단에 윤상원이라는 이름을 새겨 놓았다.

이번 벽화 교체가 자칫 ‘또 바뀐 것이 5·18이나’ 하는 교조주의적 시각이 발동될 수도 있었으나 5·18의 가장 상징적 공간 인근에 5·18의 상징인물 벽화가 들어선 것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일 수 있다. 추후 다류로도 활용될 계획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교체된 만큼 존 레논에 버금가는 도심 상징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시민과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인증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명소가 되는 등 문화 인물의 핫플로 윤상원의 삶과 정신은 물론이고 5·18이 더 많이 기억되기를 바란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